

제18장

여섯째 환상: 교회의 왕 노릇과 용의 멸망(20:4-10)

우리는 앞 장에서 사단의 결박과 감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요한은 천년 동안의 사단의 결박과 감금을 이야기한 후,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는 교회와 용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1.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교회

교회는 사단이 무저갱 속에 감금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임 당한 성도들을 부활시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신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4-5 절)

여기서 ‘첫째 부활’에 대한 4 절과 5 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첫째 부활인가? 요한은 첫째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 한다고 증거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 3:1-3)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성도의 ‘거듭남’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다.

성도의 둘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요 5:28-29)

즉 성도의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만, 불신자는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기 위해 사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한번 육체적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날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어 잠시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여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한다. 첫째 사망이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면, 둘째 사망은 이들의 죽은 육체가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 음부에 있던 불신자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즉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이며, 첫째 사망으로 그 육체가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에베소서 2 장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5-6)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에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려지고 일으켜져 하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승리한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더라”(계 3:21)고 말한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가르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고 있다'고 표현한다(딤후 2:12). 즉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왕 노릇 한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관용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는 자들로 불리워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계 5:10)

그리고 4-6 절에서의 표현대로,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들’ 또한 여전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의 천년 동안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은 “그(예수님)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고전 15:25) 하고 계신다고 증거한다. 즉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만물은 예수님의 장중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영혼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천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천년 동안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교회의 다스림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그의 발등상을 삼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체 기간을 가르킨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며, 이를

통해 세상의 일부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무천년설이 의미하는 현 ‘천년왕국 시대’이다.

1. 천 년이 찰 때 일어날 일

사단은 천 년 후에 무저갱으로부터 잠깐 놓임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단은 잠시 풀려나 하나님과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하기 위해 곡과 마곡을 모으는데,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묘사한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8 절)

여기에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38-39 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을 그 배경으로 한다.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은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의 안전과 견고성을 시험하기 위해 등장하며, 곡과 마곡이 패퇴하게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의 안전성이 입증된다. 요한은 이러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을 인용하여 말세에 반기독교적인 세계 만국이 일어나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9 절)에서 “성도들의 진”은 과거 이스라엘 12 지파가 40년 광야생활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말이다.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며, 이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한다. 따라서 곡과

마곡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요한은 사단이 종말에 잠시 풀려나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지도자들과 국가들에 의해 심한 박해와 유혹과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 교회가 사단에 의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공격을 당하는 시기는 과연 '언제'를 가르키는 것일까? 그 시기는 아마도 오늘날의 시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00년 대에 들어서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등장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교권 지역들은 여전히 교회가 박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현대의 화려하고 풍성한 문명은 많은 성도들로 세상의 부와 물질 등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이단들과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하여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거짓 교훈을 붙잡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미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이 바로 곡과 마곡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단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곡과 마곡을 다 태워버리듯이 멸망하게 된다. 사단과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향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10절). 참고적으로,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유향 못에 던져졌다고 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한 후에 용이 멸망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멸망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일 뿐,

결코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전쟁을 의미하며, 바벨론 멸망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그리고 사단의 멸망은 모두 동일한 세상의 멸망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들의 멸망을 나열한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용과 두 짐승의 추종자 불신자의 멸망

20:11-15 절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이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11 절). 여기서 책들과 생명책은 최후의 심판의 판결 기준인 책들이다. 책들에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적혀 있으며,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12 절) 받게 된다. ‘큰 자나 작은 자’는 세상의 모든 계층을 말하며, ‘죽은 자’는 짐승을 따르다가 죽어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말한다. 최후의 심판 날 “사망과 음부와 바다”(13 절, 이 셋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는 죽은 자들을 모두 내어 놓는다.

그 책들에는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의 행위가 적혀 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14 절). 그리고 둘째 사망에는 사망과 음부도 함께 던져진다. 더 이상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망이나 음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다(15 절).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된다.